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과 대중문화 비평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양 은 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1. 서론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는 1950년대 출간된 두 저서, 리처드 호가트의 《문자의 효용 *The Uses of Literacy*》과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와 사회 *Culture and Society*》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그람시주의적 마르크스주의,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 계기들을 경유하면서 변모해왔다(Storey, 1996: 4). 사실상 문화연구의 역사는 수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람시와 알튀세르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문화연구는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또는 의미영역에서의 투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는 문화를 경제적 차원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자 했던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맞서 문화적 실천의 상대적 자율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주의적 입장의 채택이었다. 1980년대 들어 문화연구는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등 이른바 ‘포스트주의’ 문화이론들을 경유하면서 또 한 번의 수정주의를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수정주의 노선, 즉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은 다시 문화연구의 문제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Curran, 1990; McGuigan, 1992).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에서 매스미디어 텍스트는 더 이상 단일화되고 내적 일관성을 갖춘 지배담론의 장이 아니라 불일치와 모순, 간격 심지어는 내적 대립을

지닌, 저항적 의미생산의 장으로 개념화되었다(Curran, 1990 : 155).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되는 수동적인 수용자로부터, 훨씬 더 능동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였다. 대중문화 소비에 의해 제공되는 환상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종속적 지위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일탈과 저항을 경험하게 하며,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평가되었다. 아울러 대중문화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비판론으로부터 벗어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위계적 가치구조를 거부하고, 기존의 문화·예술 정전들의 권위를 전복시키려는 작업들도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이 야기한 중요한 변화들이다.

문화연구에서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이 부상하였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사이는 세계적으로 문화연구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 상황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들어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 학문들에서 문화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급증하였다.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와 신생 문화잡지, 저널리즘과 상업적 출판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들에서 문화연구가 미친 영향력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연구를 비롯하여 문화이론들의 지적 유행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 시기 문화연구의 인기를 가늠케 한다.¹⁾

이와 같이 문화연구가 갑작스럽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게 된 것에 대한 지배적 해석 중 하나는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감수성들, 종종 포스트모던 소비문화로 언급되는 문화적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이러한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체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결과로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화적 변동에 따른 지적 성찰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연구가 활성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문화연구가 어떻게 당대의 문화적 변동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하는 점을 보기가 힘들다.

문화연구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지식체계가 아니라, 상이한 역사적·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지적 실천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연구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놓여진 사회적 맥락으로 우리의 관심을 확장해야 한다. 또한 문화연구가 지적 실

1) 문화연구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담론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들로 김성기(1994, 1995), 김연중(1996), 원용진(1996), 정준영(1996) 등을 들 수 있다.

천이었다고 할 때, 이는 경험적으로 감지되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특정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범주화함으로써 사회적 현실로서 고정하는 힘을 지닌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국적 상황 속에 문화연구를 삽입하여, 문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과 정당성 획득과정에 연루된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물질적·상징적 이해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실천이 당대의 다른 사회적 실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효과를 창출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세력은 누구인가? 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해 나갔는가? 이들의 지적 실천은 어떻게 기존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으로 조직화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

본 논문은 구체적 분석을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실천이론을 활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장(field)과 아비투스(habitus),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적 실천에 대한 부르디외 이론의 인식론적·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지적 실천에 대한 일반론을 1990년대 한국의 문화연구라는 구체적 맥락과 접합시키기 위하여, 부르디외의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ies) 개념을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소비문화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고 있는 마이크 페더스톤(M. Featherstone)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2. 이론적 논의

1) 지적 실천과 장, 아비투스, 문화자본

지적 실천을 당대의 문화적 장 속에 삽입하여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과의 관계 구조 속에서 살펴보려는 작업은, 지식을 세상에 대한 특정 이해와 사유의 틀을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권력으로서 이해하려는 입장을 전제한다. 부르디외의 실천이론은 이러한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적 실천은 상징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지적 생산물로부터 자신의 것을 구별짓고자 하는 경제적 실천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해석을 믿게 하고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징권력(symbolic power)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Bourdieu, 1990:146).

고전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구조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영역들에 국한하여 이해(interest)관계를 논의하고, 상징적 영역들에서 이해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였던 반면, 부르디외는 상징적 실천 영역에까지 경제적 이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는 사회적 행위를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략으로서 행위란 실천들이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와 연루된다는 점,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이란 합리적 행위이론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의 산물도 아니고, 무의식적 프로그램의 산물도 아니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실천전략을 ‘아비투스’(habitus)의 발현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사회학의 지속적인 인식론적 과제였던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아비투스는 어떻게 구조가 행위자들의 활동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동시에 그러한 일상적 활동들이 어떻게 구조적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이다. 신체에 각인된 성향의 체계로서 아비투스는 행위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인지와 사고와 행동을 틀지우는 실천의 발생원리이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다양한 사회환경을 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객관적인 사회구조가 행위자들에게 내면화된 산물이며, 행위자들은 이 구조화된 행위를 통해 객관적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구조와 실천의 통합적 순환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아비투스는 계급이나 계층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객관적 기회들의 무의식적인 내면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집단적 현상이다. 《구별짓기 Distinction》에서 부르디외는 상이한 계급집단들의 아비투스에 따른 문화적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취향이란 행위자들의 사회적 존재조건의 차이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된 미학적 성향의 체계이다. 따라서 상층 계급의 과시적 문화취향과 편안함, 지식인들의 귀족적 금욕주의, 중간 계급의 부자연스러운 겉치레, 노동계급의 필요취향과 순응 등은 계급들이 처한 상이한 물적 조건들의 내면화의 결과이다. 예를 들면, 클래식과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양, 즉 예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을 전유하는 능력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자본의 불균등한 축적 패턴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향의 차이를 마치 타고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자연화하고, 지배계급의 취향을 정통취향으로 승인하는 다양한 문화적 재생산과 성별화의 제도들을 통해 계급적 불평등 구조가 상징적인 수준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아비투스²⁾와 함께 실천이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개념이 바로 ‘장(field)’이다. 사회적 실천이 행위자의 아비투스와 그가 처한 특정 상황의 만남의 산물이라고 할 때, 이 특정 상황은 ‘장’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실천이 일어나는 특정 영역의 구조화의 원리가 어떻게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객관적 관계구조를 표현하는 일종의 은유로서 ‘장’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구성체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일련의 장들, 예컨대 문화의 장, 정치의 장, 경제의 장 등과 그 하위의 수많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은 일차적으로 특정 종류의 자본의 획득을 둘러싸고,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자산들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투쟁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자면, 지적인 장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소유로부터 생겨나는 권력과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반면, 경제적 장에서 행위자들은 경제자본을 놓고 경쟁한다.²⁾ 각각의 장들의 고유한 구조화 원리를 낳는 상이한 자본 형식들에 대한 인식은, 장들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내적 발전의 기제들에 의해 상당정도 구조화되며, 외적 환경으로부터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지적·문화적 장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문화적 생산물이 도입되고 인정받게 되는 과정은 장 바깥의 경제적·정치적 결정 요인이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변화는 자율적인 개별 장들의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이를 우리의 분석과 연관시

2) 부르디외는 각각의 장들을 구조화하는 상이한 논리들과 관련하여 경제자본으로 환원되지 않는 상이한 자본형식들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킨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등이 그것이다.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전환될 수 있고, 소유권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산요소들, 즉 토지나 공장, 노동력 등과 각종 재화들, 즉 자산, 수입, 소유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가족에 의해 전수되거나 교육을 통해 생산되는 문화적 지식, 능력 또는 성향을 일컫는 것으로, 문화적 취향처럼 몸 속에 체화된 형태로, 또는 책이나 예술작품과 같이 다양한 문화재화로 대상화된 상태로, 또는 박사학위처럼 제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연결과 관계망이다.

켜 본다면, 지적 실천에 대한 일차적 분석작업은 지적·문화적 장의 고유한 역사와 논리에 입각한 지식인들의 투쟁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신수정주의 문화연구가 도입되고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변화와의 직접적인 조응관계가 아닌, 지식인 집단들 내에서의 세력관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쟁의 전략은 장에서 행위자들이 점유한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다. 이 위치는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본(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의 총량과 그 총량의 내부구성, 즉 그들 자본 전체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에 따라 지배적 위치와 피지배적 위치로 나뉜다. 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 즉 장에서 위계화의 원리가 되는 특정 자본을 거의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복 또는 이단의 실천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기존의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지을 수 있어야만, 즉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장 속에서 인정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장에 들어서는 신참자들은 기존의 사유방식과 단절하면서 새로운 사고와 표현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이전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것들을 담론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전복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장에서 행위자들간의 위치관계가 재배열됨으로써 장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은 행위자들에게 투쟁의 구체적 형식들을 부과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신참자들의 전복의 전략 역시 그들이 장을 구조화하는 내재적 법칙과 목표에 합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공적일 수 있다. 행위자들은 장에서 작동하는 게임의 논리를 거부하는 순간 이미 게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입장 선택은 행위자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인식과 평가의 범주 속에 각인된 가능성의 공간(a space of possibles)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문제들, 참고사항, 지적 준거점, 무슨무슨주의 등등, 말하자면 연구자에게 장의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명심해야만 하는 것들을 정의함으로써, 그들의 연구에 방향성을 주는 공간”이다 (Bourdieu, 1993: 176-7). 제약의 체계, 즉 가능성의 공간을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로서 채택된 입장은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별지을 수 없으며, 특정 장의 게임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장들의 자율성을 상정함으로써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적 입장을 벗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 자율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 장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지적

자원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투쟁은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보상이나 기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은 결코 경제적·정치적 장의 필요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경제적·정치적 장의 구조화 원리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적 장은 ‘제한 생산의 장’과 ‘대량 생산의 장’이라는 두 개의 하위 장으로 나뉜다. 지식의 ‘제한 생산의 장’은 고도로 전문화된 시장으로서 지식의 소비자를 동료 지식인 집단으로 제한하며, 지적 정당성 투쟁은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에 속한 지식인들은 즉각적인 물질적 이해나 정치적 보상 등을 거부한다. 반면, 대중 소비자를 겨냥한 지식의 ‘대량 생산의 장’에 속한 지식인들은 책의 발행부수와 같은 지표로 측정되는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의 수요라는 외적 기준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단시간 내에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속해 있는 장이다. 제한 생산의 장의 지식인들에 의해 구사되는 반경제주의적 실천전략은 즉각적인 경제적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으나, 대량생산 장의 지식인들에 비해 훨씬 큰 상징권력을 장기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부르디외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장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상동성(homology)’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하였다. 상동적이라는 것은 장들 사이의 ‘차이체계의 닮음’을 의미한다(Bourdieu, 1990: 140-1; Bourdieu & Wacquant, 1992: 105-6). 모든 장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위치들, 상호 배제와 권위 침탈의 전략들, 재생산과 변화의 기제들과 같은 동형적 속성들을 전개시킨다는 점에서는 상동적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특정 장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변화들이 다른 사회적 장들에서의 변화와 조응한 결과, ‘상동효과(homologous effects)’가 발생하게 된다. 《구별짓기 *Distinction*》에는 어떻게 생산과 소비의 만남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처럼 의식적인 적응의 관계가 아닌 무의식적인 조응의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사례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화생산의 장에서 생산자들의 문화적 실천들은 그들의 소비자의 수요보다는, 다른 문화생산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그가 점유하고 있는 지배 또는 종속의 상대적 위치들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한다. 또한 문화생산물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역시 상이한 사회계급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지배적이냐 또는 피지배적이냐에 달려 있다(Bourdieu, 1979: 440-

451). 그러나 상동성의 논리로 인해, 전문화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생산의 장 내에서의 행위자들의 실천과 생산물들은 다른 장들 속에서 상동효과를 낳는다. 행위자들이 내적 투쟁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은 불가피하게 외적 기능들을 수반한다.

문화적 장에서의 문화적 위계가 사회적 장에서의 계급위계와 조응하고 문화적 취향의 차이가 계급의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동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의 안정적인 위계를 뒤흔드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재생산의 역동적 방식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에서 제기되는 핵심주장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새로운 전환 속에서 문화적 구별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르디외와 페더스톤 등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2) 포스트모던 소비문화와 새로운 문화매개자들

최근 들어 문화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문화의 확산에 따라 문화영역으로 자본의 개입이 가속화되면서 제한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영역들이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대중적 소비물로 전환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적 소비물로 전락한 문화상품의 소비는 더 이상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서로 구별짓는 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련의 연구자들은 소비패턴에 의한 집단意識의 형성 가능성이 생산관계 속에서의 위치에 기반한 계급의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르면 유사한 소비패턴에 의해 형성되는 취향집단이나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집단들의 성장이 사회적으로 계급차이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가치의 위계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고 문화의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Chambers, 1986; Fiske, 1989a, 1989b; Willis, 1990).

페더스톤(1991: 83-94)은 이와 같은 주장들에 반대하면서, 포스트모던 소비문화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련의 연구들이, '포스트'라는 접두사가 갖는 의미에 지나치게 현혹됨으로써 확정되지도 않은 모던과 포스트모던 사이의 차별성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들은 '포스트모던'이 주장하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새로운 문화적 실천들과 경험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는 것이다. 그는 문화적 실천에는 ‘더 이상 어떠한 규칙도 없고 단지 자유로운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포스트주의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반대하며, 소비문화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특정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화하려는 사회세력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오늘날 지식과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문화적 자원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고 그것을 경제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실천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배의 형식과 사회적 이해를 구현하는가를 살펴보면, 대중 소비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 실천이 계급구별의 지표가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페터스톤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문화적 징후들 속에서 역동적인 방식으로 문화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상징생산자들을 논의의 전면으로 끌어오려는 시도이다. 고급문화 대 대중문화와 같은 안정적인 가치의 위계구조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가치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 세력들간의 격렬한 투쟁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계급간 역학관계 속에서 보자면, 하층집단들이 상층집단의 취향을 배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상층집단은 하층집단과의 원래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취향들을 채택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과 경험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취향의 생산자로서 문화매개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ies)란 특정 방식으로 문화적 취향을 구별짓고 판단하며 위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상징생산자 집단들을 일컫는다(Bourdieu, 1979). 부르디외는 그의 문화사회학에서 예술과 문학의 사회학은 작품의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상징적 생산 역시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비평가와 출판업자, 화랑 운영자들을 문화매개자로 언급하였다(Bourdieu, 1993).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소비문화에서의 문화매개자들은 사회구조의 지속적인 분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신중간계급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Featherstone, 1991; Lash and Urry, 1993)³⁾. 부르디외는 《구별짓기 *Distinction*》에서 상징생산과

3) 신중간계급의 대두와 형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학의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다. 여기서는 부르디외와 페터스톤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중간계급의 문화적 취향과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부르디외는 신중간계급보다 신프티부르주아지라는 용어를 선호하였고, 같은 의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신프티부르주아지 계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 마케팅, 광고, 홍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듀서, 잡지저널 리스트, 패션전문가, 결혼상담가, 성상담가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 문화 자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계발을 통해서 구별을 추구한다.

신프티부르주아지들은 사회적 공간에서 유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고 따라서 계급적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다. 문화소비의 양상에서 부르주아들이 문화를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향유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프티부르주아들이 문화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부자연스럽고 지나치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식인의 충족감과 명성을 제공하는 삶의 예술을 고안한다. 사회적 금기들에 맞서 투쟁하고, 지적인 생활양식 중에서도 외면적이고 쉽게 빌려 올 수 있는 측면들, 즉 자유롭고 해방된 매너, 화장이나 의복의 대담함, 해방된 포즈와 자세를 채택하고, 이렇게 배양된 성향을 정통문화의 주변부에 있는 영화와 만화, 언더그라운드 등의 문화영역과 일상생활, 개인적 영역(성, 화장, 자녀교육, 여가), 존재에 대한 문제(자연과의 관계, 연애, 죽음의 문제들)에 체계적으로 적용한다(Bourdieu, 1979: 370-371).

문화연구자들의 역할은 이와 같은 신프티부르주아지의 문화적 취향과의 친화력과 조응관계 속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이 국내에 도입되고 확산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화메가자로서 문화연구자들이 문화적 취향들을 생산하고 사회적 장의 재생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3. 비판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

국내 학계에 영국 문화연구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주류 연구였던 미국식 실증커뮤니케이션학을 반대하면서 등장한 비판커뮤니케이션학의 역사에서이다. 비판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들은 미국식 연구를 기성구조의 테두리 안에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정책지향적 성격의 ‘미체

신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혹은 신계급이나 지식계급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한다(Featherstone, 1991: 43-44). 이 글에서는 신중간계급과 신프티부르주아지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국주의 연구'라고 비판하였다(이상희, 1983: 4). 이에 맞서 자신들의 연구를 '반미 제국주의 연구'로 규정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적 조류들을 대거 국내에 들여왔다.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비판이론적 시각>(1983)이나 <현대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1986) 등과 같은 번역서는 비판커뮤니케이션학의 출발을 알리는 대표적 저서들이다. 그러나 이 책들의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비판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문화와 매스미디어에 대한 상당히 이질적인 지적 조류들을 하나로 묶어 지칭한 느슨한 개념이다. 초기의 개론서들은 문화와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문화주의, 구조주의-기호학, 비판이론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각각의 입장들은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반된 인식론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이나 그람시주의의 연구성과를 수용함으로써 비판커뮤니케이션학은 다양하고 때로는 상호 대립하는 지적 패러다임들의 집합체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비판커뮤니케이션학은 담론의 안정적 재생산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위협의 가장 큰 요소는 지적 장 바깥에서 일어난 일련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들에서 야기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동구권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몰락,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 등의 정치적 맥락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1990년 전후로 절정에 달했던 마르크시즘적 총체성 개념에 입각한 변혁담론은 큰 타격을 받았다.

비판커뮤니케이션학 내에서도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토대-상부구조의 공식에 따라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경제적 결정의 문제로 보았던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한편 구조주의적 신화분석, 알튀세르주의에 입각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이데올로기 장을 편입과 저항의 이분법에 기반한 투쟁의 장으로 개념화하였던 그람시주의 등이 후기구조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에 의해 대체되거나 부분적으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생겨났다. 박명진(1991)의 '저항, 즐거움,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론연구회(1992)에서 펴낸 <'포스트'시대의 비판언론학>, 강명구(1993)의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등은 국내 비판커뮤니케이션학의 지형에서 신수정주의 문화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글들이다.

국내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적 전환에 따라, 기존 문화연구 전통에서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의 도구로서 취급되었던 텔레비전 드라마, 뉴스, 광고 등을 '저항적 의미생산의 장'으로 재개념화하려는 연구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뮤직비디오가 포스트모던적 징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체로서 개념화되면서 문화연구자들의 담론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되었다.4) 피스크의 연구작업은 이 시기 국내 문화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었는데(양정은, 1998), 그는 매스미디어 텍스트를 파편화되고 다의적인 의미의 공간으로 재규정하면서, 전통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텔레비전의 퀴즈쇼나 드라마 장르에서도 수용자들의 능동적이고 저항적인 해독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뮤직비디오 분석이나 팬덤을 포함한 하위문화 분석에서도 수용자들에 의한 저항적 의미와 즐거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 동안 비판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지만, 다른 학과들에서 문화연구의 제도화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학, 미학, 인류학, 문학 분야에서 포스트주의 문화이론 및 문화연구의 성과들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문학과 고급예술에 국한되었던 학문적 논의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까지 넓히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지만, 일정한 세를 이루지 못하고 산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꼽자면, 미학 분야에서 서울대학교가 여전히 고급예술의 정전을 고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홍익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1994년 이후 영화 연구를 비롯하여 대중예술의 미학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몇몇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동안 문화연구의 대학 내 제도화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물렀다.

반면, 대학의 바깥에서 학술지 활동을 통해, 그리고 저널리즘 및 출판시장에서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이 세력들이 가시적이고 감지될 수 있는 일정 세력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신세대 논쟁을 통해서였다.

4) 국내에서 뮤직비디오를 사회학적 논의로 끌어들이고 있는 초기 연구로 박명진(1991)의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 문화'(<계간 사상>, 10), 김형곤(1992)의 <뮤직비디오 수용자들의 포스트모던 청소년 문화에 대한 현장 기술자>(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허남경(1994)의 <뮤직비디오 수용을 통한 젊은이들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영(1994)의 <한국 소녀들의 뮤직비디오 소비와 문화적 실천>(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라지용(1994)의 <포스트모더니티의 문화적 현상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뮤직비디오와 청소년 저항문화를 결합하는 방식의 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4. 신세대 논쟁과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의 부상

1990년대 들어 지적 장의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신세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논쟁은 대학과 인문·사회과학 잡지, 중앙 일간지와 시사 잡지, 단행본 출판시장을 망라하여 광범위한 지적 지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논쟁은 개별 연구자들 간의 공통의 관심사와 합의하고 있는 신념체계를 명확히 하고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신세대 논쟁은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신진연구자들이 기존의 지적 패러다임 및 그 지지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짓고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세대 논쟁은 1990년대 들어 주목할만한 몇 가지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이른바 ‘오렌지족’ 문화로 명명되었던, 압구정동을 무대로 한 청소년들의 소비문화,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와 이인화의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작품들, 서태지의 음악과 그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이 1990년대 신세대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일련의 논쟁을 거치면서 생산된 담론들을 통해 지적 장에서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일보>가 1992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오렌지족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기획한 압구정동 소비문화에 대한 보도를 비롯해 이 시기에 언론을 통해 대량 생산된 오렌지족 담론에는 새롭게 등장한 소비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소비문화는 ‘향락’, ‘퇴폐문화’, ‘저속한 쾌락의 탐닉’이라는 용어들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부정적으로 개념화되고 지탄의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이’와 ‘돈을 물 쓰듯 하는 부유층 자제’의 이항 대립 역시 소비세대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3년에 이르러 오렌지족 담론에 맞서 소비문화의 징후들에 새로운 해석을 부과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진 문화적 현상이 바로 서태지 음악이다. 트로트와 발라드 중심의 기존 대중음악계에 랩이라는 새로운 음악장르와 현란한 춤, 파격적인 복장을 들여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화생산물로 주목받았다. 신세대론은 바로 이 서태지 세대의 문화물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담론실천의 결과물이었다. 다음은 이 시기에 생산된 신세대담론의 대

표적 사례들이다.

우리는 신세대를 철없는 아이들로 규정하는 관행에 반대한다. 1990년대의 신세대는 최고의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파워와 감성적인 열정을 자랑한다. 우리의 나이는 18세에서 멈추길 바라며 철이 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한다. (...) 서태지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노래하는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철학자, 최고의 기술을 다루고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는 과학자, 상식과 인습을 파괴하는 아방가르드이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끝없이 질주하는 혁명가이다. (<신세대: 네 멋대로 하라>, 1993, 권두언)

(서태지 세대는) '서편제'에서도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 감동의 본질을 서태지의 랩 송과 테크노댄스에서의 그것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클래식이든 재즈든 뽕짝이든 판소리든 민요든 만화영화 주제가든 동요든 드라마 주제가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동등하게 선택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각자 제 맘에 드는 것, 제 삶의 감수성을 보다 잘 반영해주는 것을 선택할 따름이다. (이재현, <상상>, 1993 겨울: 174)

반권위적 개성에 대한 폭발적 욕구를 지니게 된 오늘날의 신세대, 이 사회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창조성을 실현할 장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창조적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신세대의 존재야말로 개혁의 진정한 필요를 추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아 개혁의 진정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강영희, <사회평론 길>, 1993년 9월호)

이 세 편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변혁담론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로서 내세워졌던 민중과 노동자계급의 자리를 신세대가 대체하고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의 구현체였던 대중문화가 창조적인 정체성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자원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라는 도식을 거부하고 단지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동등한 선택이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또한 '상식과 인습을 파괴하는 아방가르드'와 '반권위주의적 개성에 대한 폭발적 욕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문화적 실천이 기존의 정치적 실천들을 대체하는 저항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시기 전후에 지적 장에 새롭게 진입한 잡지들에서 이러한 입장의 채택이 명확히 드러난다. <리뷰>는 창간호에서 '주류질서의 전복자 서태지' 및 '매니아 문화'를 주제로 하는 기획을 통해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신세대' 담론의 생산을 주도하였다. <상상> 역시 창간 권두언에서 "<상상>은 신세대 잡

지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세대란 19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아니다. 이 혼돈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 하는 세대”라고 밝히고 있고(주인석, <상상>, 1993년 가을: 8-17), ‘신세대문학’ 논쟁을 통해 문학계에서 기존의 리얼리즘 문학의 지지자들에 맞서 장정일과 이인화로 대표되는 문학의 새로운 경향들을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이외에도 앞서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연구 부정기 간행물들을 발간하였던 현실문화연구팀⁵⁾과 문화잡지 <오늘예감> 등도 신세대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집단들이다.

중앙 일간지에서도 ‘탈권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세대 문화에 대한 기획시리즈가 다루어졌고, 이들의 소비문화가 ‘멋과 개성의 추구’라든지, ‘자아표현의 수단’이라는 식으로 표현됨으로써 기존의 오렌지족 담론에서와 달리 문화담론의 지형에서 신수정주의적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1년에 창간된 시사잡지 <사회평론>과 그 후신으로 1993년에 ‘문화를 통한 투쟁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출범한 <사회평론 길>에서도 신세대 시리즈가 집중 기획되었다.⁶⁾

신세대 논쟁은 1980년대의 변혁담론 주도세력에 반기를 들고 지적 장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세력들의 시도가 가장 가시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포착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변혁담론 생산자들이 국가·계급·자본 등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에서 지배와 저항의 거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던 반면, 이 새로운 세력들은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을 널리 공유하면서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미시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문제의식은 1990년대 들어 창간된 문화잡지들을 거점으로 집단적 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상>과 <리뷰>, <오늘예감>, 현실문화연구 팀 등의 담론 실천들을 통해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이 어떤 세력들에 의해 전유되고 어떤 구체적 문화현상들과 결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현실문화연구의 문화연구 시리즈물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TV-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 <광고-신화, 욕망, 이미지>, <신세대: 네 멋대로 하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등이 문화연구의 대중화된 버전을 표방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현실문화연구 팀에 의해 기획된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문 학술담론의 성격이 강하다.

6) <사회평론>에 실린 문화기획, ‘서태지 현상연구’(1993. 5), ‘신세대, 그 초라한 광기’(1993. 6), ‘그 당당한 몸의 문화’(1993. 6), ‘육체, 다듬어-보이기, 말하기’(1993. 6), ‘략카페-자유 혹은 개성’(1993. 6) 등과 <사회평론 길>의 ‘신세대 그 소용돌이’(1993. 9), ‘신세대, 유행잡기 소동’(1993. 1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대중문화 비평과 이중적 구별전략

1990년대 들어 사회과학 잡지들의 급격한 퇴조와 함께 창간된 문화잡지, <문화과학>(1992년), <상상>(1993년), <리뷰>(1994), <오늘에감>(1994), <이다>(1996),⁷⁾ 그리고 현실문화연구 팀의 활동을 주도한 세력들 중 상당수는 1960년대 이후 출생하여 1990년대 전후에 지적 장에 진입한 인문사회과학계 대학원생이거나 대학원 수료생들이었다. 또한 <오늘에감>이나 현실문화연구 기획시리즈 중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와 같이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잡지의 주도세력들은 대학교수이거나 문학·예술 잡지를 통해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한 평론가들이었다.

따라서 신생 문화잡지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연구자들은 지적 장의 지배적 위계구조 속에서 주변적 위치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고 그들의 지적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잡지들의 권두언에서 잘 드러난다.

<상상>은 우리가 직면한 문화의 절망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려 한다. 반성이 결여된 물질적 대중문화와 전문주의를 가장한 자폐적 엘리트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 간극을 메우는 비판적인 가교가 되고자 한다. (...) 요컨대 <상상>은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 작가적 대중주의, 대중적 작가주의를 옹호한다. (<상상>, 1993 가을, 권두언)

우리는 대중문화의 무조건적인 긍정(엘리트주의의 철저한 부정)을 거부하지만, 대중문화=상투성=상업주의라는 식의 단순한 도식도 거부한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대중문화가 비평적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우리의 문화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뿐이다. (<이다>, 1996, 7, 권두언)

우리는 ‘이론’과 ‘대안’과 ‘실천’이라는 삼박자가 새로운 강박이 되어버린 세대와, ‘감성’과 ‘즉자’와 ‘소비’를 생득하고 있는 세대의 중간쯤을 엮으며 별도의 틈입지점을 목하 모색중이다. (...) 계몽주의 잔당들의 대리만족을 위해 아카데미즘, 혹은 강령과 신화 따위를 허겁지겁 조달하고 싶은 의욕도, 능력도, 우리에게겐 없다. 우리는 단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심정과 일탈의 처세를 권고하고 싶을 뿐이다. (<오늘에감>, 1996 봄, 권두언)

7) 괄호 안은 잡지의 창간 연도

이 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지식인들은 ‘이론과 대안과 실천이라는 삼박자가 새로운 강박이 되어버린 세대’이며, ‘전문주의를 가장한 자폐적 엘리트문화’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에 맞서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대중주의를 지향하며 기존의 지식인에 의해 거부되었던 대중문화를 ‘세심하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삶의 중요한 부문’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기존 지식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이해로부터도 구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중문화의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반성이 결여된 물질적 대중문화’, ‘감성과 즉자와 소비를 생득하고 있는 세대’로부터 구분한다. 이것은 기존의 저널리즘적 비평가들처럼 상업적 이익이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지식인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점, 즉 물질적 이해에 대한 ‘사심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적인 권위를 보장받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구별전략을 통해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전문적 학술담론과 대중적 담론 사이의 중간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적 활동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이중적 구별전략은 이들의 담론실천의 형식적 차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적 위계화의 틀을 거부하는 자유로움의 제스처는 문화잡지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지식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문 학술용어를 무시하고, 비어나 은어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기존의 위계적 도식 속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오늘예감>은 1990년대 창간된 문화잡지들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용어의 사용과 극단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집 ‘누가 PC통신을 장악할 것인가’(1994년 10월), ‘순응하는 젊은이여, 그대의 암울한 내일에 저항하라’(1995년 2월), ‘영화 100주년 특집: 꿈깨자 한국영화’(1995년 6월), ‘공간: 그곳에서 놀기, 싸우기’(1995년 9월), ‘죽어버린 마이너리티와 똥파리들에 고향’(1997년 여름) 등에서 사용된 어휘들에서 나타나듯이, ‘저항’, ‘싸우기’, ‘장악’ 등의 전투적 용어들과 은어나 비어, 속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을 통해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기존의 지적 위계 속에서 그들에게 부과하는 제약에 명백히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생잡지들을 무대로 신진 문화연구자들이 기존의 전문적 학술담론과 저널리스트 비평의 중간 지점에서 이 양자를 매개하기 위해 개척한 장르가 바로 대중문화 비평이다.

‘상상’의 선택은 리뷰란이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리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할 것이다. 좋은 정보를 선택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는 리뷰어들이 절실하다. (<상상>, 1993 가을, 권두언)

우리는 싸움터가 거리에서 지면으로 옮겨 앉았다고 내심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안타깝다. 더구나 이론적인 치밀함과 안정성이 없다고 비웃는 자들을 보면 심하게 거북하다. 그런 한숨섞인 침뱉기를 하기보다 솔직함과 진정성을 무기로 틀어쥐고 생생하고 적극적인 싸움을 칸칸하게 벌여 나감으로써 문화를 비평한다는 것의 위치를 현실 속에서 다시 잡아갈 생각이다. (<오늘에감>, 1994년 가을/겨울 권두언)

우리 앞 세대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를 분석했지만 우리의 주된 비평의 대상은 산업적인 대중문화이다.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의 테크놀로지를, 작가가 아니라 문화산업의 자본적 구조를, 작품이 아니라 상품의 미학을 분석하고 비평해야 하는 우리는 불행한 걸까 행복한 걸까. (<리뷰>, 1994 겨울 권두언)

문화에 대한 비평적 개입을 통해서 스스로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비판적이고 꼼꼼한 책임기로서의 문학비평이다. 그 모델은 문화비평의 전 영역에 확장되어야 한다. (<이다>, 1996, 7 권두언).

1990년대 이전까지 상업적 대중문화가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의 도구로 비판받고, 대중문화적 취향이 저급한 것으로 가치 폄하되었던 반면,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대중문화 비평을 통해 대중문화를 지적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으로써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가치체계가 부정되고 대중문화에 대해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문화에서 가치의 논의가 사라지고 취향의 민주화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진 문화연구자들의 담론실천은 대중문화 내에서 또다시 좋은 취향이 무엇이며 저질의 취향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텍스트이고 그렇지 않은 텍스트인가를 가르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들이었던 것이다.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지식을 자본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권력화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정교한 약호화를 수행한다. 이는 대중 누구나 친근하고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한 대중문화 경험의 영역을, 특

정한 감식안과 복잡한 분류틀을 체득해야만 해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며, 대중문화의 소비와 관련한 일종의 진입 장벽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실천들을 통해 대중문화의 소비자들은 대중문화를 ‘감식’하기 위한 특정 규칙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규칙을 습득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로써 대중문화 연구자들이 소유한 지식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영화·대중음악·만화와 같이 기성 학계에서 정통문화로 인정받지 못했던 새로운 대중문화 장르들을 비평의 대상으로 전유함으로써, 이 장르들에 문화적 권위를 부여하였다. <상상>, <문화과학>, <리뷰>에 실린 각 문화 영역별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화에 대한 비평담론이다. 영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심미적 속성에 대한 것으로, 미적인 혁신과 실험을 추구하는 작가주의 영화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외에도 고전영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하거나, 기성 평단에 의해 가치가 폄하되었던 영화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 등이 나타난다.

대중음악 영역에서도 트로트나 발라드와 같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장르들보다는 록이나 언더그라운드 음악처럼 주변부에 있는 장르들을 비평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정통문화로서의 클래식 음악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상업적이고 통속적인 문화로부터도 변별적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실천전략이 주축을 이룬다. 대중음악비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잡지 <리뷰>의 경우, 록과 언더그라운드 음악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비평논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예외적으로 정태춘과 조용필이 비평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영화의 고전들을 재해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진 문화연구자들이 과거 대중문화물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지적 자원의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넓히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록과 언더그라운드 음악에 대한 편향은 <상상>, <오늘예감>, <이다>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정통문화의 주변부 문화나 과거의 문화물들뿐만 아니라 최신의 대중문화들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였다. <리뷰>의 창간기획 ‘PC통신, 그 한계와 가능성’(1994 겨울)과 <오늘예감>의 창간호 특집 ‘누가 PC통신을 장악할 것인가’(1994년 10월)에서 볼 수 있듯이, PC통신·사이버공간·멀티미디어 등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은 기성의 의미와 가치 체계 속에 편입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들을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그 분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6. 저널리즘의 장과 문화연구의 대중화

신진 문화연구자들의 활동거점은 비단 위에서 살펴본 문화잡지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지적 조류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담론실천에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제도적 토대는 바로 저널리즘의 장이었다.

1990년대 들어 중앙 일간지들의 문화면 보도방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문화면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⁸⁾ 책, 영화/비디오, 음악/춤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면 구성이 나타났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영역들이 새롭게 문화보도의 대상으로 포섭되었다. 여가, 여행, 음식, 패션 등 다양한 생활문화가 중앙 일간지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관련한 문화의 새로운 풍속도들이 문화면의 주요기사로 다루어졌다.

문화보도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기존의 문화면 보도가 고급문화 중심적이었던데 반해 1993년 이후 모든 중앙일간지들에서 대중문화 관련기사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같은 중앙 일간지의 경우에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비교해보면 대중문화 보도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견된다. 일례로 <조선일보>의 대중음악 보도에서는 최신 인기가수 및 가요에 대한 기사들이 톱뉴스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트로트나 댄스음악과 같이 해당 시기에 대중적으로 선호되었던 장르들에 대한 기사가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 포크 및 록 음악 장르가 선호되었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주로 보도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비평의 전문화라는 점에서도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와 차이를 보인다. 기

8)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앙 일간지 지면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이후 1993년까지는 문화면이나 경제면보다 종합/정치면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1993년 <조선일보>를 필두로, 1994년에 이르러 전 신문에 걸쳐 문화면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일보>의 1996년 문화면은 1990년에 비해 1.92배 증가하여 종합/정치가 1.62배, 사회가 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한겨레신문> 역시 1990년 대비 1996년 문화면이 1.71배 증가하여 다른 지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1993년 이후 레저나 생활문화(스타일, 패션, 음식, 인테리어) 지면들이 대거 증가하였는데, 이 지면들을 문화면에 포함할 경우, 문화지면의 증가추세는 다른 지면들의 증가율을 더욱 크게 앞지른다. 양은경(2000), 146-9 참조.

존의 문화비평들은 대부분 기자들에 의해 단순한 소개형식을 띠고 있거나 인상비평의 성격이 강하였다.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의 영화관련 고정 박스기사인 ‘영화계 이야기’는 영화작품이나 감독에 대하여 평하는 글이 아니라, 영화배우나 제작과정에 얽힌 주변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겨레신문>의 영화평은 기존의 저널리즘 비평으로부터 차별화를 선언한 이효인, 이정하, 정성일 등의 평론가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들에 의해 작가성에 대한 관심, 영화텍스트의 심미성이나 이데올로기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들이 시도되었다. 이는 영화를 단순히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 진지한 비평의 대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연극 등 각 장르별 비평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일보>에서 비평이 주로 사회적 지명도가 높고 대학교수나 문화, 예술계의 원장이나 단장과 같이 기존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은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면, <한겨레신문>은 훨씬 더 전문화된 비평을 추구하면서, 각 장르별 신진 연구자들을 기고자로 기용하고 있다.

훨씬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을 띤 문화기획시리즈들의 증가 역시 전문적인 대중문화비평기에 대한 수요에 한몫을 했다. <한겨레신문>의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칸에서 만난 사람들’ 등은 기존의 영화에 대한 보도가 단순히 일회적인 보도방식이고 줄거리를 소개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본격적으로 영화작품 및 감독의 작품세계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지하게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만화가’, ‘20세기 사람들: 레닌에서 비틀즈까지’와 같은 기획에서 대중문화 생산자들에 대한 전기적 조명을 통해 그들을 예술적 창조자로 명명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부르디외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양 신문의 차이는 상류층의 자유로움과 중산층의 정전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학계의 주류 학자들을 방패막이로 하여 대중문화를 자유롭게 전유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신문>의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진지하다. 후자는 저널리즘 장의 후발주자로서 기존의 장의 위계를 변형하거나 전복하려는 투자감각을 보여주며, 따라서 대중문화의 영역을 진지한 분석의 대상으로 전유하였다. 그 결과 <한겨레신문>은 정전을 고수하는 데 보다 집착함으로써 기존의 학문적 권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변화 속에서 주목할 점은 저널리즘의 장에 문화비평가 또는 평론가라

는 새로운 직함을 달고 대중소비자를 대상으로 문화비평을 생산한 일군의 집단들, 이른바 ‘10대 비평가’들의 등장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성의 학자집단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신생 문화잡지들을 무대로 활동한 신진 연구자들이었으며, 기존의 저널리스트 비평가들로부터도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하였던 집단들이었다. 이들은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지적 조류로 부상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 등의 서구 문화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성 연구자들에 의해 배제되었던 대중문화를 지적 장으로 끌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담론을 저널리즘의 장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던 중앙일간지들의 이해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은 지적 장의 위계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계의 지식인들이 너무 아카데미즘에 갇혀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관점이 학계의 인정을 받는 것을 즐기는 이중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실천성향과 친화성을 보이는 학계의 담론들은 저널리즘의 장으로 재빠르게 수용된다. 학계의 지식인들 역시 저널리즘의 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하다. 이들은 매스미디어에 대하여 이중적 성향을 보여주는데, 매스미디어에 의해 지식이 오락화되고 상업화되는 현상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매스미디어가 행사하는 강력한 ‘가시성’의 권력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연구 대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하는 성향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중앙 일간지의 저널리스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학술 담론을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담론 생산에 지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학계의 지식인들 역시 저널리즘의 장에서 대중문화 담론의 증가를 자신들의 담론실천의 현실적합성을 위한 근거로서 인식한다. 결국 이러한 폐쇄적인 상호 인정의 관계를 통해 대중문화 담론의 확산과 분화는 마치 본래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현상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담론의 자의성과 담론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방해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1998년 7월 21일 <한국문화학회(가칭)>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에서 일군의 문화 평론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10대 비평가라고 폄하한데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문화이론가인 강내희가 지금까지의 많은 문화 연구자들이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현상에 대해 10대 정도의 짧은 글에 자신을 담고자 한 것을 반성하고자 회두를 내놓았다. 그에 대해 서동진, 이재현, 손동수 등의 문화평론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단순히 비평적, 담론적 개입만으로 볼 수 없으며 실천적 개입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운동적 활동이었음을 주장했다(원용진, 1998: 34).

7.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들어 국내 지적 장에서 급부상하였던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에 주목하면서, 이 새로운 지적 조류가 어떻게 특정 세력들에 의해 현실구성의 전략적 자원으로 동원되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의 등장은 지적 장에서의 일련의 변화들, 즉 기존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의 설명력 약화에 따른 사회과학적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감소와 대학 내로 진입하지 못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급증 등과 맞물려 있다. 신수정주의 문화연구를 지지하였던 연구자들 중 다수는 대학 또는 문단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통해 그들의 지적 자원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생 문화잡지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지적 조류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구별짓고자 하였다. 이들은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지었던 가치체계를 공격하였고, 자신들의 문화적 취향과 대중문화적 지식을 문화자본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기존의 전문학술 담론과 저널리스트 비평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개척한 문화비평을 통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적 욕구들과 감수성들을 진지한 분석의 대상으로 전유하고 지적 외양을 부여함으로써 가치있는 문화적 취향으로서 정당화하였다. 신세대 논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낭만적 반권위주의나 부정부주의적 감수성을 표출하고 있는 대중문화적 실천들이 문화적 ‘저항’ 운동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미 대중화되고 통속적인 대중문화들이나 고급문화의 정전들보다는 아직 문화적 위계 내에 포섭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적 징후들이 언더그라운드, 얼터너티브, 마이너리티, 인디펜던트 등의 용어로 명명되면서 실체적 가치를 부여받았다. 신진 문화연구자들은 같은 시기 문화담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에 의존하고자 하였던 중앙일간지들의 필요와 조응하여 중앙일간지의 문화지면을 통해서 자신들의 담론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연구자들의 지적 실천은 정통문화의 주변부에서 보다 쉽게 전유할 수 있으면서도 계급적 지표가 될 수 있는 문화적 취향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문화소비의 장에서 제한된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문화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려 요약하자면, ‘이것은 더 쉬우면서

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식의 오인효과를 통해 신진문화연구자들의 실천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지적 장에서의 변화를 경제적 장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은 문화의 새로운 소비자들을 계발할 필요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경제의 논리는 금융과 절제, 저축과 이해타산 등에 기반한 생산과 축적의 금융적 윤리를 거부하는 반면, 소비의 쾌락윤리를 선호하면서 문화상품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간다. 따라서 경제적 장과의 상동성에 비추어본다면,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소비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대중문화 텍스트들의 차이체계들을 부각시키면서 대중문화의 새로운 취향들을 정당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을 창출하고 분화시킴으로써 문화산업의 안정적 확장을 지지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연구의 지평 속에서 대중문화 비평가 집단의 부상은 경제적·정치적 수요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지식인 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우만(1987)은 오늘날 지식인들이 보편적인 진리추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법가의 위치로부터 해석자라는 다소 비중이 적은 위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사적이고 문사적인 지식인의 전통에서 생산되는 담론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대신, 문화적 소비영역의 광범위한 확장이 소비와 관련된 상징생산의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바우만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 해석자로서의 지식인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광범위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적 실천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법가' 시절의 상징권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1990년대 신수정주의 문화연구의 대중적 성공은 정치적·경제적 장과 같은 다른 사회적 장들의 구조화 원리들이 지적 장의 구조화 원리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적 장의 자율성이 점차 위축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명구(1993).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강현두(1987). 『대중문화론』, 서울: 나남.

- 김성기(1994). '대중문화는 과연 <시대의 교과서>인가', 『세계의 문학』, 1994 겨울호.
- _____(1995). '왜 문화비평으로 가는가', 『세계의 문학』 제 78호, 겨울, 54-72.
- 박명진(1989). 『비관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과와 그 쟁점』, 서울: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_____(1991a). '즐거움, 저항, 이데올로기',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7-95.
- 박명진 외(편역) (1996).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 양정은(1998). 「한국 문화연구의 영국 문화연구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석사학위논문.
- 양은경(2000). 「1990년대 한국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형성과 권력효과: 신진 문화연구자들의 상징권력 획득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원용진(1996). '대중문화의 "과잉담론"', 『경제와 사회』 제29호, 봄.
- _____(1998). '현실개입의 실천적 문화연구 가능성',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호, 통권 11호, 32-61.
- 이상희(1983).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한길사.
- 정준영(1996). '대중문화의 분화와 담론의 성장', 1996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1992). 『포스트시대의 비판언론학』, 한울.

2) 외국 문헌

- Bauman, Z. (1987). *Legislators and Interpreters: On modernity, post-modernity and intellectual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71). *Champs de Pouvoir, champ intellectuel et habitus de classe*, Scolies, 1.
- _____(1979). *Distinction*, R. Nice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1980). *The Logic of Practice*, R. Nice (trans), Cambridge: Polity Press, 1990.
- _____(1984). *Sociology in Question*, R. Nice(trans), London: Sage, 1993.
- _____(1988). *Homo Academicus*, P. Colliern (tran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90). *In Other Words: Essays toward a Reflexive Sociology*, M. Adamson (trans), Cambridge : Polity Pres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Oxford: Polity Press.
- _____(1992). *Les regles de l'art: Genese et structure de champ litteraire*, Edition du Seuil, 하태환(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 _____(199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1996). *On Television*, The New Press.
- Bourdieu, P. & Wacquant, L. J. D.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mbers, I. (1986). *Popular Culture: The Metropolitan Experience*, New York: Methuen.
- Curran, J. (1990). The New Revisionism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 A Re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 임영호 역,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의 신수정주의: 하나의 재평가', 『포스트'시대의 비판언론학』, 한울, 1992:144-180.
- Featherstone, M. (1991).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Sage.
- Fiske, J. (1989a). *Reading the popular*, London: Unwin Hyman.
- _____ (1989b).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London: Unwin Hyman.
- Garnham, N. (1992). Bourdieu, the Cultural Arbitrary, and Television, C. Calhoun et al. (eds.) *Bourdieu: Critical Perspectives*, Polity Press.
- Garnham, N. & Williams, R.(1980). Pierre Bourdieu and the Sociology of Culture: an introduction, *Media, Culture & Society*, 2(3): 209-23.
- Hall, S. (1996).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In J. Storey (ed.), *What is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Johnson, R. (1993). Pierre Bourdieu on Art, Literature and Culture, In R. Johnson(Ed.),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1-2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sh, S. and Urry, J. (1993).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
- McGuigan, J. (1992).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 Marliere, P. (1998). The Rules of the Journalistic Field,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3(2): 219-234.
- Mander, M. S. (1987). Bourdieu, the Sociology of Culture and Cultural Studies: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 427-453.
- Morris, M.(1990). Banality in cultural studies, In J. Storey, *What is Cultural Studies?*.
- Slater, D. (1997).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Polity Press.
- Sparks, C. (1996). The evolution of cultural studies, In J. Storey(ed.), (ed.), *What is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Stabile, C. A. (1995). Resistance, Recuperation, and Reflexivity: The Limits of a Paradigm,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4).
- Storey, J.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mon & Schuster,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 _____ (1996).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In J. Storey(ed.), (ed.), *What is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Swartz, D. (1997). *Culture and Power: the sociology of Pierre Bourdieu*,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lis, P. (1990). *Common Cultur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